



올네이션스 교회 여성중창단이 '내 마음의 강물'을 부르고 있다.

컴퓨터 등 20여강좌 오픈

중앙시니어센터 비엔나 캠퍼스 가을학기 개강

중앙시니어센터(디렉터 이해성 박사) 비엔나 캠퍼스가 7일 개강식을 갖고 가을학기 수업을 시작했다.

중앙시니어센터는 이번 학기부터 기존의 비엔나 캠퍼스(올네이션스 교회) 외에 센터빌 캠퍼스(중앙장로교회)를 새로이 오픈, 두 곳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센터빌 캠퍼스는 비엔나에 있어서 지난 3일 개강했다.

비엔나는 이번 학기에 첫 개강되는 레슨 활동반을 비롯 영어(1,2,3), 성경, 컴퓨터 기초,

서예, 꽃꽂이, 손뜨개, 시판권(한글, 영어), 상각종이접기, 문예, 바둑, 윌트, 건강체조반, 라인댄스 등 20여개 강좌가 개설돼 오는 12월까지 매주 화·금요일 공부한다.

수업 강소를 제공하고 있는 올네이션스 교회의 후원기 목사는 개강에 배설교를 통해 "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살아가는 시니어 회원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을학기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개강식은 이정복 목사(올네이션스 교회)와 사회, 올네이션스 여성중창단의 특송, 감사찬 및 자원봉사자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비엔나 캠퍼스는 예닌타일, 에버그린 하우스, 버크 가든스 시니어 아파트, 헤어팩스, 타이슨스 타워, 폭스 체이스 & 린코니아, 락우드 시니어 아파트 등에 카운터 버스가 운행되며 한 식으로 된 따뜻한 점심식사로 제공한다.

(정영희 기자)

당신을 '당혹하게 하는 공간'

홍순명씨 등 현대작가 4인전 개막

한국 등 아시안 작가 4인의 독특한 실험적 작품을 모은 '당혹하게 하는 공간(Puzzling Space)' 미술전이 지난 주말 위싱턴DC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힐러이(Hillier) 아트 스페이스에서 3일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서 한인 회화 설치작가 홍순명씨는 DC의 친근한 이미지들을 표현한 회화설치 작품 '사이드 스키이프' 연작을 출품,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시회는 인터넷 신문에서 발

견한 제 3자의 시선을 형이상

확적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한 것들로 지난 겨울 위싱턴을 강타한 폭설 관련 미디어 이미지를 재현한 70여점의 회화를 전시공간에 설치했다. 전시회에는 흥 췌와 태극 출신의 서양화가 차르라만 탕가 랫나, 중국계 비디오 아티스트 댄 링, 필리핀계 설치작가 에릭 자무코 씨가 참가. 회화,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근작을 선보였다. 전시회를 기획한 정영옥 대표(프로젝트 안디니)는 "미술전은 접하기 힘든 실험적인 아

시아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유기적이며 새로운 미술 교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위싱턴 한미 예술협회 회원들과 위싱턴문화원 원장인 남진수 공사 등 300명이 넘는 관객이 참석,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3일에 이어 4일 열린 '작가와의 대화' 행사에서는 전시회를 공동 기획한 정영옥 씨와 제이미 창제의 기획회도 설명, 4인 작가들의 작품해설로 진행됐다.

전시회는 내달 22일까지 계속된다.

(정영희 기자)



공동기획자 정영옥, 작가 에릭 자무코, 댄 링, 홍순명, 공동기획자 제이미 창(왼쪽부터)